

宇宙 랑데뷰 33種 科學試驗

아폴로〈美〉·소유즈〈蘇〉 歷史的 도킹

—科學研究 위한 國際協調 신기원—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온 「아폴로」와 「소유즈」의 도킹 試驗을 위해 7月 15日 蘇聯의 人工衛星 「소유즈」號가 중앙 아시아에서 發射되고 7時間半 뒤 美國의 「아폴로」 衛星이 발사된다.

이들 두 衛星은 처음 이틀 동안 外界에서 각기 獨自의인 시험과 機動 연습을 하다가 17日 歷史的인 「도킹」을 시도하며 「도킹」은 2일간 계속된다.

이들 간 양측 우주 비행사들은 서로 상대방 宇宙船을 방문해 共同試驗을 하고 食事나 운동도 한다.

「소유즈」는 7月 21日 地球로 귀환하나 「아폴로」는 地球 궤도에 남아서 獨自的인 과학 시험을 한 후 24日 지구로 돌아온다.

이 도킹 시도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美國 航空宇宙局(NASA)은 外界에서의 科學活動 協調를 위해 66개국과 무려 6백여개의 協定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번에 이루어진 「아폴로」와 「소유즈」의 역사적 「도킹」은 科學研究를 위한 국제 協調活動에서 新紀元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번 「아폴로·소유즈」 시험계획(ASTP)에선 33종의 科學 시험이 행해지며 그 중 5종은 양국의 우주 비행사가 공동으로 행하고 소련의 단독 시험은 6종, 美國의 단독 시험은 22종이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2일간의 「도킹」活動 중 양국 우주 비행사들은 人工日蝕 地球大氣圈 상층의 산소 原子 및 窒素 原子의 측정, 「아폴로」爐에서 소련 物質의 加工 및 우주 비행의 免疫性과 지구의 여러 時間帶에서 가져 온 박테리

아 세포에 미치는 外界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두 가지 生物學的의 시험 등 5가지 試驗을 하게 된다.

이번 ASTP의 주요 目的은 美·蘇 양국이 따로따로 開發한 宇宙船의 「랑데뷰」 및 도킹 장치를 시험하는 데 있으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科學試驗인 것이다.

—駐韓 美대사관 제공—



John Yong(美)과 Voldinir Syromyatnikov(蘇)가 휴스턴 우주 기지에서 아폴로 도킹터널 구조를 눈에 익히고 있다.